

順天金氏宗報

제26호 2000. 9. 30(토)

順天金氏中央宗親會/발행인:김종식/편집실장:김명환/138-16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1 한화빌딩 303호/전화:(02)400-2501~2502/FAX:(02)400-2505

親愛하는 宗親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예년에 없이 후덥지근하고 숨이 막힐듯한 지난여름 전국의 종친 여러분 생업에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 종친회에서는 해마다 연례행사의 하나인 순김자녀 대학생 하계교양강좌를 8월 1일~5일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강당 35평을 현대식으로 축조하여 금년여름에 그 넓직한 가락당에서 강의를 받는 후손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매우 흐뭇하였습니다. 해마다 시사때만 되면 낡고 좁은 동원재에서 제관들의 잠자리는 너무나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 지은 가락당에서 편안히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종친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기쁨을 안겨주게 된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김 종친회는 개인의 입지에서 시조의 위담 및 건축물, 재실등의 동기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 가락당의 건축인허가과정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을 순천에서 운수사업을 경영하시는 金東洙 중앙종친회 운영위원겸 별유사께서 각별한 노력의 결과로 순김 종친회가 사단법인의 면모를 갖추어 동원재와 관리인 주택, 가락당은 법인의 이름으로 동기 수속을 하게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경하하여 맞이합시다. 앞으로도 동원재 사문 개축의 예도 너무나 많은 사업이 가로놓여 노심초사하고 있사오니 오로지 종친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만이 종친회의 앞날은 밝힐수 있다고 봅니다.



제15기 하계 교양강좌 입소식, 개식사를 하는 중앙종친회장

目下 대동보 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오니 전국에 계시는 종친여러분은 더불어 산다는 대전제하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명실상부한 대동보를 집대성하기까지 일심단결 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운데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00. 9.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장 金鍾植 올림>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十一期 定期總會開催 公告

會則第十二條 一項에 依據 二〇〇〇年
第十一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 省略)

二〇〇〇年 十月 十一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一. 日時: 二〇〇〇年 十一月 十二日(日)
(十一時)

二. 場所: 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岩빌딩 二十八層

한화그룹 大講堂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〇二一四〇〇二五〇一(二)

▼전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200m 거리

을지로 2가 중소기업은행 三. 一빌딩앞

三. 參席範圍

一. 中央宗親會 全任員과 代議員

二. 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全宗親

四. 議案

一. 業務報告

二. 第十一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三. 第十二期 豫算案 審議

四. 大同譜 編纂에 關한件

五. 其他 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
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
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5기 하계 교양강좌. 수강생은 즐거워 함박 웃음이 터져요! 이렇게 자리서 시조묘 참배를 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둘째단을 내려오는 신나는 아침 五里山 기슭.

제 15기 順天金氏 대학생 修練會를 다녀와서

■이름:김성진(양경공 정주파22대손)

중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 절제 김종서 장군의 본관이 순천 김씨냐?고 물어 본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렇다"고만 얘길 듣고 친구들에게 "내가 순천 김씨다"라고 자랑하곤 했었다. 역사책에나 나오시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는 사실은 한동안은 내겐 자랑으로 내 친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금번 수련회는 29살의 늦각이(?) 대학생 신분인 나에게 이제껏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뿌리'를 알고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처음엔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아버님의 뜻과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순천 김씨'에 대한 의구심이 나를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교양 강좌시간에는 중천회 어르신들의 자상하고도 쉽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때로는 유머스러운 강의 말씀들이 자칫 따분해질 수 있는 강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고 재미있게 해 주었다. 또한 '가락당'의 새 건물은 우리가 편히 지낼수 있도록 해주었고 '해남의 방충서원(?)과 여수의 한화종합화학 공장전학은 수련회의 강좌를 더 한층 윤택하고 풍부하게 해 주는데 더할 나위없이 좋았다.

더욱이 학계, 법조계, 의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중천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경험과 깊은 지식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었고, 그 분들로 인해서 이 사회속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제15기 대학생 하계 수련회 강좌는 나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에게 '뿌리'의 소중함과 조상의 살아온 발자취를 깨닫고 느끼게 해 주었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천김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순천 김씨'를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겐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긴 시간(행사 준비관계로 이를 먼저감)이 더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시조 묘'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던 잡초와 잡목을 다 치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었다.

끝으로 이러한 교양강좌를 마련해 주신 중앙 중천회 회장님이하 여러 간부님 어르신들과 강사님들,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많은 일을 해주신 여러 중천 어르신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언제나 많은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님께 삼가 머리를 숙인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학생대표'로 뽑아 주시어 중천회를 위해 작게나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승연 청년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잘따라 준 우리 15기 학생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림과 아울러 행운을 빈다.

수련회 끝난 후 이를 후에 멀리 이곳으로 (미 펜실베니아 penn.state Univ.IECP 어학연수중)왔지만 언제나 우리 '순천 김씨'에 대한 자부심을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 '순천 김씨'가문의 무한한 발전과 광영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순천행길, 우리 始祖님을 향하여...

■이름:김정희 (양경공파 20대손)

약간의 걱정과 설레임을 안고 햇빛 따가운 8월1일 순천행길에 올랐다. 동원재에 오기까지 지리를 잘 몰라서 물어가며 왔는데도 일정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나를 반겨주시던 분을 내가 생각했던 또래가 아닌 할아버지여서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박과 누룽지를 가져다 주시며 신경써 주시는 마음에 나는 금세 편안해 질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15기가 될 친구들이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 오빠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고 내또래도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했지만 다같은 종친들이라 생각하고 친분을 두었다. 첫째날의 일정은 이렇듯 시조묘참배와 입소식, 동기들과 어르신들의 상견례로 끝이 났다.

둘째날, 셋째날은 여럿 중천강사님들의 노고와 가르침아래 시조 알기를 시작으로 훌륭하신 조상님들의 빛나는 업적과 관혼상제 예절법, 무엇보다 내가 제일 관심있게 들었던 족보 알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이외에도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가르침 앞에 정자세로 앉아있기란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이번 강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은 보완된 내용으로 너무 이론적이 아닌 실전에 있어서 흥미롭게 배울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날 저녁부터 오전,오후로 기공 제조를 했다. 처음해보는 거라 마냥 재미있었다.

넷째날, 제일 기다렸던 전학일.다섯분의 조상님이 모셔져 있는 방충서원에서 참배드린 후 그곳에서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대흥사 방문을 했다. 그리고 종친분이 경영하신다는 한화여천공장을 찾았다.

VIDEO상으로 그곳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관계자분의 설명아래 직접공장을 둘러보며 전학할 수 있었다. 대규모의 공장으로 여러모로 훌륭했다.

그곳 식당에서 맛있게 저녁까지 먹고 동원재로 향하는 버스길에 올랐다. 주위가 어두워졌고 멀리서 보이는 한화공장의 야경이 정말 예뻐다. 동원재에 와서 드디어 마지막날 밤을 맞았다. 아쉬운 순간이다. 어르신들의 허락하에 가락당내에 준비된 간단한 술자리.. 마당에서 갖구워온 오리고리.. 첫째날 보다 몇 안되는 오리들보구 마음이 아팠지만... 결론적으로 맛은 GOOD!! 얘기 소리는 늦은 시간까지 그칠 줄 몰랐다. 드디어 일정 마지막날. 뜨거운 햇볕아래 고추 수확을 했다. 처음 따보는 고추라서 가지 통째로 꺾어진게 몇 번인지 모른다. 더운 날씨에 고추 따기란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있어 좋았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수려증 수여식이 있는 후 가락당내에 모셔진 시조영당에 인사드리고 해산. 이렇게 4박 5일의 일정이 모두 끝이났다. 혈육에 대한 동질감이라고 해야하나? 15기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순천김씨를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준비로 고생하신 아주머니. 15기 모두모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6기들을 위하여 파이팅!!

제15기 夏季講座 入所式辭

■ 중앙종친회장 김종식

사랑하는 순천김씨자녀 대학생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멀고도 낯설은 이곳에 찾아오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새로 지은 이 강당에서 제 15기 하계교양강좌 입소식을 올리는 지금 귀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고 보니 대견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제 14기 까지만해도 동원재의 좁고 낡은 방을 강당으로 삼아 수강생들의 고생을 실감한 저 종친회장은 강당 문제를 어찌하면 해결할수 있을까? 노심초사 하던중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당이신 가락당(아호)할머니께서 일약 거금을 회사함으로써 지난 4월 1일 강당 기공식 4개월만에 공정이 끝나 바로 어젯날 (7월 31일) 많은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만한 크기의 넉넉한 강당에서 제 15기 수강생 여러분들이 제일먼저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행운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더불어 감사하는 의미에서 당호를 가락당으로 命名 하였습니다.



제 15기 하계 강좌 입소식날, 김희원 박사의 격려사. 1986년 여름 방학을 계기로 순천김씨 자녀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를 개설한 이래 지나간 여름 제 14기 까지 무려 22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일 제 15기 입소식에도 22명이나 참여하였다는 것은 진실로 눈부신 발전이라고 사료됩니다. 【위 사진은 격려사를 듣는 수강생들의 진지한 모습】

강좌 일정은 8월 1일~5일까지 4박 5일간의 강사진은 순김출신 박사로서 전현직 대학교수 몇분외에 성균관대 역사학 서수용 교수, 순김출신 전현직 법관 변호사 몇분이 짜여진 시간에 따라 강의를 맡아주실것입니다.

강의 주 내용은 여러분들의 대학에서는 좀처럼 들어보지못한 순천김씨사(史)이상의 차원이 높은 역사학을 강의할것입니다. 여기는 남도에서 이름난 五星山 기슭 순천김씨 시조묘가 있는 곳입니다. 주위에는 천년 노송과 우거진 대나무숲의 그윽한 향기, 할아버지 살내음이 베어있는 골짜기, 고운샘이 졸졸 흐르는 소리, 자연의 맛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땅위에 우뚝선 강당에서 수강생들은 영광인 동시에 단한번의 기회인 만큼 열심히 듣고 배워서 장차 이 나라의 동량지재가 될 수 있는 기로에서 밀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일 東柱 할아버지 강의... 양경공은 거북이 눈에 검고 긴 일곱과 매 어깨의 장대한 체력을 지녀 말을 타고 달리면서 40근짜리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른 장사였으며 글을 잘하 시어 천문지리에도 능통하시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셨을때에 仙翁이라는 호칭을 받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 마치 역사소설을 듣는 것 같아 아주 재미 있었요.

이러한 증정에서 중앙종친회에서는 해마다 하계교양강좌 행사에 쏟는 노력과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대한 보답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때에 비로소 순천김씨의 보람은 오리니 촌각인들 게을리 하지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관계상 이만 제15기 하계강좌 입소식사로 가름합니다.

2000. 8. 1 오후 5시 강당에서

절재공(節齋公) 가훈(家訓) 제작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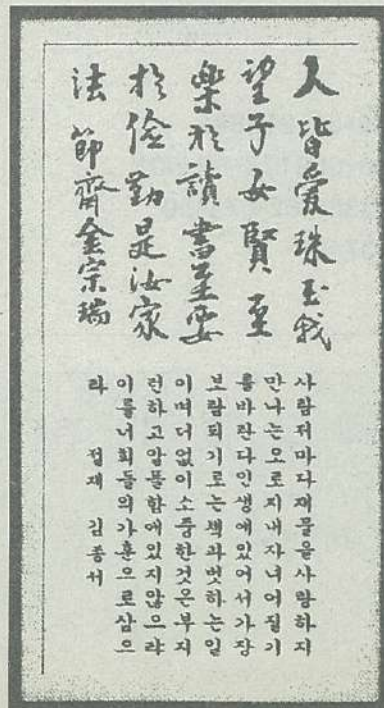
친필로는 국내 유일...덕목과 도리의 가치 일깨워
절재공 위상 정립 사업 일환, 실비 2만원에 보급

중앙종친회는 '절재공의 가훈을 순천김문의 가훈으로 정하자'는 취지아래 이 가훈을 인쇄본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절재공이 남긴 이 가훈은 친필로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몽유도원도 시첩외에 국내에 있는 유일한 역사적 가치가 소중한 유품으로 서울대 도서관에 그 진본이 소장돼 있다.

절재공이 晩年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고인의 인품(人品)과 정신은 물론, 후대를 생각하신 자애로운 심성이 묻어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만대에 걸쳐 명심하고 지켜야 할 덕목(德目)과 도리(道理)로 학계로부터 그가치와 소중함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절재공 위상정립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이번 가훈제정을 전국 모든 종친으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훈제작에 들어가 개당 실제작비(2만원)만 받고 보급하고 있다.





제 15기 하계 교양강좌 입소식
남학생 14명, 여학생 8명 모두 환한 미소, 중앙종친회장님과 여러 종친
어르신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너무 좋아요'
내일의 거목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동원재 앞에서 기념촬영-

◀ 年會費 적극 수납안내 ▶

중앙종친회는 임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년회비와 세대당 년회비, 그리고 篤志 宗親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期마다 거르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신 회원님과 篤志 宗親의 찬조금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11기 (1999. 10. 1~2000. 9. 30)에 납부하셔야 할 임원 년회비는 제9기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알려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제11기 기간에 납부하셔야 할 년회비가 12기 총회 월인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임원 및 세대당 년회비를 적극협조 해 주셔야 2천일년 하반기에 대동보편찬 작성에 차질이 없을것을 양망하옵고 철저한 성찰과 세심한 감독을 확고히 할것을 알려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종친회 회장 백

회 장	년	200만원이상
부회장	년	50만원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이상
고문·명예회장	년	10만원이상
감사·간사·이사	년	10만원
대의원	년	5만원
세대당년회비	년	2만원

온라인구좌	■ 농 협	069-01-212885
	■ 한빛은행	146-003175-02-501
	■ 우체국	012351-02-073450
	■ 지로번호	7637405

알리는 말씀

현재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종친(宗親)들의 현주소(現住所)가 많이 누락(漏落)되고 변경(變更)되어 종보(宗報)의 발송등 일반 종중사(宗中事)의 연락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전국 종친(宗親)들의 주소록(住所錄)을 재정비(再整備)코저 하오니, 이미 연락을 드린바와 같이 각지역 종친회(各地域 宗親會), 派宗會의 임원(任員)에서 누락(漏落)되었던 종친과 특히 성년(成年)이 되어 분가(分家)하고 새로이 일가(一家)를 창립(創立)한 종친들에게 빠짐없이 연락을 하시어 종친회에 등록(登錄)을 하고, 다함께 힘을 합쳐 종사(宗事)를 도모(圖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탓으로 이름은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겨 주시되 주소(住所)와 전화번호를 함께 통보 하여 주시고, 전화(02-400-2501~2)나 팩스(02-400-2505)로 연락을 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幹事長 五淵 아림

原稿 募集 應募要望

順天 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募集 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恩惠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종보 제24호 P2중간하단 鍾자를 陞자로, 諱鍾 次子 宗興을 宗瑞로, P13 기념식수 지난 4월 1일을 10일로 P14 월담사 차례편 우편 우단 3행 情誠을 精誠으로, 이상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鳥嶺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喆 熙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56-8
電話:(02)572-5059, 573-5968
自宅: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77-803
電話:(02)543-5439

광일공업(주)

三星電管(株)의 100ppm해위인중 제1호공장

代表理事 金 光 在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 화:(031)234-3171~2
FAX:(031)235-4518

대문목재(주)

각종 목재 제조업

代表理事 金 都 淵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567
전 화:(032)577-7733

清溪電業株式會社

勸業部承認 第一種電氣工業業 153號

代表理事 金 文 載

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7(清溪빌딩)
本社電話:(02)2265-6558, 2275-0732~3
工場電話:(02)877-6227
自宅電話:(02)877-6224

永登浦漢方病院

代表理事 金 喆 俊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登浦洞4街 153-1
電話:(02)678-8225, 678-0848

大同譜 收單에 關한 말씀

금반 修譜에 있어서는 宗派單位 작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收單작업 또한 各派에서 천거된 분이 위촉받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단위원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여 궁금하신점은 아래 제시한 派別收單委員과 연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의치 않을시는 중앙총친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단위원 명단 (무순)

과별	수단위원	전화번호	과별	수단위원	전화번호
목재공·절재공과	김영태		익찬공과	김봉희	054-421-0969
	김용석	053-581-5684		김동현	054-552-5617
	김영환	063-862-4276		김하연	054-853-8334
	김동원	02-859-6351		김상목	
	김종원	02-931-4720		김한수	031-205-0605
	김달원	041-833-9450		김병화	02-701-3251
	김수용	053-357-1824		김재석	031-0612-8921
	김석원	016-381-3315		김남석	02-432-4028
	김정순	062-512-4360		김재숙	02-433-1581
	김왕영	041-753-1073		김재희	
전서공과	김병운	031-632-3451	공과	김정희	011-9636-3757
	김문식	031-632-3450		김채덕	
	김일량	031-632-3432		김상률	02-487-2817
	김남수	031-773-0761		김진효	
관사공과	김동성	02-916-1158	판서공과	김백원	
	김용순	053-941-6865		김학순	061-744-1191
	김동근	054-841-2316		김성태	061-763-2515
	김문원	054-552-7275		김호재	
	김창호	032-873-8577		김덕호	061-761-6844
	김경로			김근모	061-651-9368
	김달응	054-532-5143		감찰공과 사무소	063-625-3662 016-651-7667
	김병준	054-552-3547		군수공과(철연공과)	02-400-2501
	김규팔	054-553-2368		횡성공과 사무소	016-375-3002 011-9355-2627
	김호남	054-534-8811		상의원공과	김광홍
김용희	032-322-6216	김어연	031-962-8968		
김정걸	054-822-3078	김동학	031-963-8852		
김석산	054-855-1495	김규연	043-260-0909		
김인엽	054-535-2321	김상우	031-332-4708		
김윤환	054-853-2974	김문연	031-676-4072		
김석운	054-855-2943	김상민	031-675-9295		

(대동보 편집실)



제 15기 하계 교양강좌 수료증 수여... 4박 5일의 짧은 기간에나마 많이 배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수료식을 갖는 지금 정말 기뻐요! 더한층 정진하기 바랍니다.
-중앙총친회장-



많은 원로 종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15기 하계 교양강좌 입소식 광경

合同技工事

(전문공사업)

代表 金東胡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5-6
전화: (02)409-7723
FAX: (02)409-7726

金沅杰稅務士事務所

稅務士 金沅杰

사무실: 안동시 운풍동 116-29
전화: (054)856-1773
자택: (054)822-4197

(주)근하공영 (주)홍인인수

代表 金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02)972-2331

(株)東南特殊運輸

代表理事 金東洙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503-2
사무실: (061)724-9125~6
FAX: (061)724-9127
자택: (061)752-8441
호출: 012-610-8913

金料元神經外科醫院

(전문공사업)

院長 醫學博士 金斗元

病院: 光州廣域市 東區 錦南路 5街 101
電話: (062)228-2471
自宅: (062)223-7200

(株)高麗바이오스톤

백황토(전통자연), 녹조 및 적조 수질정화제, 모양정화제

代表理事 金大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事務所 電話: (054)571-6887
自宅: (054)571-5500

金東吾法務士事務所

法務士 金東吾

事務所: 聞慶市 店村洞 244-8
電話: 事務所 (054)555-4887~8
(054)555-2740
自宅: (054)555-4031

내외합동법률사무소

辯護士 金亨民

事務所: 瑞草區 瑞草洞 1678-2
동아빌라트 2동 403호
電話: (02)3477-0654~6
FAX: (02)3472-4561

南道名山과 제15기 夏季教養講座 참관 紀行文

·종보 편집실 江素 김 명 환

우리 일행 6명은 7월 31일 가락당 준공식 8월 1일~5일 제 15기 하계 교양강좌 준비를 위하여 하루앞서 7월 30일 중앙 종친회관 앞에 모였다. 9인승 코란도 차에는 행사 준비물건을 가득 싣고 앞좌석에 병무 父子가 타고 오연 간사장 지탁 종친과 나는 호연 대부차에 탔다.

오후 2시 두 대의 차는 삼북염천에 후끈후끈 달아오른 시멘트 길바닥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가락시장 번화가 도로를 벗어나 경부 고속도로를 향해 남으로 남으로 달리던 차는 전주 팽주를 지나 五星山 기슭 순천행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도로 좌우편에 펼쳐지는 높고 낮은 산 골짜기 골짜기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훑칠새라 차창밖을 열심히 내다보는 사이에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 뇌성병력까지 동반하며 차 윈도우 부러쉬 작동까지 멈추는 무서운 폭풍우 마치 공포의 도가니속을 헤매는 영화 한토막 같았다. 창촌 어귀에 왔을때 갑작스럽게 비는 그쳤다.

이윽고 동원재 앞마당에 두 대의 차를 나란히 세웠다. 비온 뒤 흐린날 저녁 짙게 땅거미 속에도 환하게 눈에 띈 가락당안에 큼직한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얼음같이 찬물이 팔팔 나오는 정수기 종이컵에 들쭉담은 약수물을 별케벌씩 들이키는 잘나 북향한 유리문 미닫이 안에 새로꾸민 영당이 성큼 눈에 쏙힌다.

내일이면 이곳에 할아버지 영정을 피시려니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은 뒹다. 해마다 음력10월 초하루 시사때 어설픈 잠자리를 피해 송학 근처의 여관을 찾곤 했다. 오늘밤은 넓적한 방 안에서 새이불의 잠자리는 너무좋아 행복감이 넘친다.

7월 31일 먼동이 트는 이른 새벽에 병무 아우와 나는 시조묘 참배를 한뒤에 병무 아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도 그럴것이 60나이에 난생처음 시조묘를 찾는 그마음 내 어찌 모르랴! 더더욱 고향이 이북이기에 남달리 깊은 감회를 헤아리고도 남아 어서 산을 내려가자고 다그쳤다. 어제 저녁에 온 우리 일행은 동원재 안팎을 말끔히 소제를 하고 있노라니 상운 도유사, 상용 부회장, 동수 운영위원장 겸 별유사, 춘희유사 외에도 많은 원로종친 100여명이 오셔서 오후 다섯시 가락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치렀다. 이어서 오후 여섯시에는 동원재에 모셨던 영정을 가락당내에 새로꾸민 영당에 봉안식을 올렸다.

8월1일 정오를 조금 지나서 三三五五 모여들기 시작한 제 15기 수강생들은 처음 찾아온길이라 한결같이 굳은 얼굴 표정으로 가락당안에 들어선다. 마침내 22명의 수강생들이 모이고 많은 종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15기 하계 교양강좌 입소식이 진행되다 김종식 중앙 종친회장의 式辭를 하고난 뒤에 김재준 상임 고문의 축사시에는 여러번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긴장감이 가라앉는 듯 서로가 미소를 교환하는 눈빛은 어찌먼 조상이 있다는 고마움의 一家가 있다는 축복을 받고 모두가 처음 만나는 얼굴들이지만 비로소 가슴이 뭉클한 친족감이 어떻게 솟아났는지 이내 오빠, 누나하면서 정겨운 만남은 정말 아름다웠다.

8월 2일, 3일 양일간에 강의를 맡아 주셨던 동주 선생, 응렬 변호사, 형민 변호사, 두원 박사, 두희 박사, 정일 박사, 성군관대 서수용 박사, 가연순김 영남지역 종친회장, 명재 대동보 편찬도감, 춘희 유사 여러분은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찌는듯한 열천에 멀리 오셔서 수강생들에게 유익한 가르침 주심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사를 드린다.

강의 마지막날 오후 4시 30분 연일 무더위에 지친 수강생들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병무 아우가 동단, 진도 아리랑, 경상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일본 아리랑, 연해주 아리랑을 연거퍼 열창할때에 수강생들은 어찌나 좋은지 곡조에 맞추어 짹짹 손뼉을 치면서 환희의 노래 五星山 기슭에 메아리되어 울려 퍼졌다.

8월 4일날 아침 한화에서 관광버스 한 대를 동원재에 보내왔다. 하계강좌를 마감한 관광 썬서비스다. 수강생 22명, 원로종친 13명 모두 좋아 드높은 환호소리를 담은 관광버스는 관광 제1코스 파란 승주호를 끼고 돌아서 화순 보성 강진 다섯 고을을 두루 거쳐서 너댓시간 만에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에 다달았다.

나는 처음오는 길이라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간 방춘서원 현판이 성큼 눈에 띈다. 재실에 양경공, 절재공, 복저공 三相의 위패를 피시어 일명 三相祠라고 일컬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알순 없으나 제당 안에는 남은공 망미당, 진사공 두분의 위패를 三相 위패옆에 나란히 피시고 五賢祠라는 호칭이다. 이곳은 月出山 남쪽까지의 黑石山 기슭 쇠금(金)자형의 명당터의 정기를 받아 남은공, 망미당 진사공의 자손들은 오늘날의 눈부신 번영을 謳歌한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강당이나 재실이 너무 낡아서 현상태로 해마다 순김자녀 대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나의 소박한 심정이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날 이름하여 아름다운 芳春서 원담게 단청도 하고 뜰에도 꽃,나무도 심어 곱게 단장한 모습을 보고 싶구나..

관광 제 2코스 두륜산 대흥사로 가는길 해남군에서 첫손꼽는 동성평야 저멀리 지평선 끝이 안보이는 드넓은 들판에 따가운 여름 햇살을 들쭉 머금고 통통하게 살찐 벼이삭이 남해 바다바람에 일렁인다. 평퍼짐한 동성평야 한복판을 가르며 달리던 버스는 대흥사 주차장에 멈추었다. 여기에서 절(절)까지 300m쯤 걸어가노라니 망화교 다리를 건너 잠시만에 彼岸橋 오른편 보성 박물관에 서산대선사 휴정위 절충장군과 사명대선사 추충익대 좌명공신의

영정을 기리고 있다. 진화문 앞에 枕溪樓 뒤뜰에는 千佛敎 두륜산 대흥사 대웅전에 피신 부처님은 일천여년전의 佛心이 살아서 숨쉬는 듯 했다.

이토록 유명한 대흥사 경내를 두루 구경을 하고 다시 주차장에 모여 제 3코스 여수로 가는 길가에 즐비한 백일홍 꽃,나무들 석양노을에 붉게 물들어 더욱 아름다웠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던데 우리 일행이 지나갈 무렵에 보이고서 백일씩이나 곱게 핀 백일홍 고맙기도 해라...

버스는 서너시간만에 한화 석유화학여천공장 정문안에 들어섰다. 공장 직원의 안내로 우선 강당에 들어가 공장의 연혁과 실황을 비디오로 알아보았다.

1966년에 창립. 국제적으로 두손가락안에 꼽는 한화 석유화학 여천공장은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공장부지 33만평 규모에 임직원과 공원 모두 820명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정말 경이로웠다. 생산품은 다양한 비닐제품 기타 폴리에치렌등 수백종을 생산한다는 설명을 듣고 또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공장 전경을 순회관람 하는데만 도 수십분이 걸렸다. 이곳은 한화 약속의 땅 동기간에 이렇게 훌륭한 공장이 있다는 것만도 가슴이 뿌듯했다.

공장 식당에서 푸짐한 갈비점을 곁드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임직원들의 정감어린 전송을 받으면서 떠난 일행은 밤 8시 20분 동원재로 돌아왔다. 오늘밤을 자고나면 헤어져야할 허탈 감속에 송별 다과회가 열렸다. 벽에 걸린 폐종 시계소리 짹짹 시간은 사심없이 흘러 자정이 좀 넘어서야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드디어 8월5일 새날은 밝아 주섬주섬 행장을 꾸미고 동원재 앞마당에 모였다.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나마 끈끈한 친족감에서 더러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다시 만나자고 서로서로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속에 하나둘씩 멀어져 간다.

나머지 7,8명은 병무차에 오르고 나는 올때와 같이 호연 대부차에 탔다. 오던길과는 정반대 방향인 압록, 곡성, 남원으로 달린다.

왜 오던길로 아니가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지리산 자락에 맑게 흐르는 시냇가에 은어낚시 구경을 하면서 신선한 맛을 보아야 관광 보람이 있잖아요' 호연 대부의 응답이다.

얼마쯤 달렸을까 천안에 왔을때에 오른손편에 우람한 차령산맥. 그 이름을 만 차령 휴게소 뒤의 나지막한 언덕에 올랐다.

그토록 웅장한 차령산맥의 신선한 바람 자연의 맛 그대로 만끽할수 있는 행복감. 집에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이렇게 여행은 떠나는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고 즐필로 기행문에 담아보았다.

한화 이체가 드리는 감각제안

아름다운 소품 이야기 - 「이체」



HT992

격조있는 분위기 메이커 -
 가지런한 치아를 살짝 드러내는 싱그러운 미소처럼
 절제된 아름다움 - 이체

e·che



HT972



HT991

DSP 자동응답 가장 최근에 입력된 메시지에서 재생됩니다.

휴대폰식 피워다이얼 메모리 번호를 2초 누르면 입력된 번호로 자동 송출됩니다.

휴대폰식 최근번호 검색 재다이얼시 최고 8개까지 발신 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 녹음 기능 통화 중 어느 때라도 자유자재로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신제품 출시기념! 9월말까지 HT992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급 Kitchen Knife Set]를 드립니다.

전국 유명백화점, 할인점, 전자랜드, 하이마트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한화/정보통신 고객만족실 1588-1231 서울 (종로)동아전자통신2272-7228 (용산)성광통신7026-272 (신원)남영정보통신6599-272 (공진)케이오정보통신3424-272 (송파)실력정보통신4228-272 (동소문)동원통신9289-272 경기 (안원)우성전자통신4648-272 (연남)유연정보통신4433-272 (안원)세리통신5023-272 (수원)신계정보통신2263-272
 (성남)별내통신47532-272 (광주)한화정보통신2800-272 (대전)탑통신2630-272 (전주)한화통신2871-272 (충주)국제상사350-8152-3 (경상)부산광역시정보통신5023-272 (대구)전경테크4213-272 (포항)포항한일무선2412-272 (울산)신일정보통신2733-272 (대전)한성통신2944-272 (제주)제주한일전자7210-272